참석자 확인. 회짱 부회짱 불꽃 나침 한길 한음 꼼. 7/13. 개회.

교육자치팀장님.

짱: 9개뿐이라 금방 끝나지 않을까. 보고안건 1. 2차 단운위에서 나온 얘기 정리. 12/3이 아니라 12/10에 진행함. 1번. 집행위원 인준. 2번. 학장단 비공식 면담 내용 정리 후 진행. 공식적 자리라기 보다는 첫 만남의 자리라서 결정적 답변보단 검토해보겠다 정도의 답. 앞으로 적극 혐의 필요. 3번. 등심위 사회대 요구안 설정함.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7차 총운위 , 즉 마지막 보고 안건에서 설명드리겠음. 비서공 가맹유지 여부. 표결로 인준. 오늘 보고안건보면 종강총회에 대한 보고가 있음. 비서공에 파견위원을 결정해야 함. 집행위에서 인사팀장님이 자원해주셔서 논의안건 2번에서 논의하겠음. 지난 시간 5, 6 번을 재논의 하기로. 이 중 6번은 이미 투쟁 정국이 끝나서 재논의의 의미가 없어서 재논의 안하기로. 5번 같은 경우 오늘하려 했는데, 오늘 중으로 연석회의에서 회의할 예정. 그래서 오늘 회의 끝나고 계획이 나올 것 같음. 아마 다음회의에 논의하게 될 것 같음. 저번 질문 중 왜 서울대 내에서 특정 단위만 가맹? 열심히 활동하던 단위에만 제안 했다고 함. 다음시간에 논의합시다. 보고안건 1번 넘?

넘. 2번은 총학 보고. 내용많음. 집행위원 인준 같은 쉬운 내용 많음. 중집위 인준. 2번은 인권위가 설치 인준됨. 특별위원회에 위원구성 결정하는 안건. 추후 더 모집 예정. 3번은 학생회비 배분에 착오가 있어서 미수령 배분금 존재. 사회대에서도 4-50000정도의 학생회비를 추가적으로 배분받기로. 4번은 총농활대에서 농민회 분들과 발생한 인권 문제 해결 위해 대책위 설치. 대책위는 평가와 진상조사를 마치고 해체. 후속조치들을 내놓은 것이 있음. 이것들 이행위한 특위 설치. 5번은 문자위에서 신입 위원을 인준. 4차 총학에도 특별 ㄴ용은 없고 회계감사위원회. 등심위가 상정. 실제로 진행하게되는 대학행정자치위원회와 사전 협의가 부족. 대자연과 1주일 더 논의 후 논의하겠다 해서 당시엔 논의 안됨. 5차 총위. 중집 파견 인준. 2번은 시흥캠 추진위에 학부생 추천위 누구? 결정하는 안건. 총학생회장이 하는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 앞으로 논의해나갈 예정. 3번은 예산안. 2019-1 전학대회 이전까지 공식 인준 절차 없어서 총운위에서 임시로 인준. 4번 성소수자 이누건포럼 논의. ㄱ당시엔 정보부족으로 논의 1주일 미뤄짐. 6차 총운위에서 논의됨. 6차 보고안건 2번이 특이. 인권센터. H교수 투쟁이후 인권사안 개선 위해 인권센터, 학생 등 다양 단위 참여하는 tft설치. 여러 차례 회의 연고 진행. 구체적 내용은 총운위 참고바람. 논의 1.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 인준. 2. 성소수자 인권포럼 공동주최 관련 직접 발제. 인준됨. 7차. 논의. 공동주최의 의미의 입장문을 작성. 함꼐 첨삭 후 인준. 2 문자위에서 예산 지원 중 동아리에서 일반적 절차로 심위받지 못함. 마당페탈? 동아리의 과실이 있었음. 그래서 지원 할지 말지. 결국 부결. 보고 1. 1/8 등심위 회의 있었음. 최종 합의 되었음. 등록금 동결. 대학원 입학금 폐지 등. 사회대 요구안은 포함 안됨. 경위 설명드려야 할 듯. 12/10에 사회대 요구안을 인준해 같은날에 총학생회장에 전달. 그 다음 총운위에서 논의 예정. 근데 미뤄짐. 그래서 1주일 미뤄짐. 근데 미뤄진 후 대학 자치연구위원장님이 우리랑 먼저 상의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됨. 근데 대학행정---에서 첫 회의를 한게 1/5이었던 것으로 기억. 이 전에 3, 4일경에 이미 1차 등심위에 진행, 8일에 최종 합의가 나와서 사회대 작성 요구안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되지 못함. 그 과정에서 논의 진행 절차가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평가.

한길: 질의> 대학행정에서 왜 먼저 논의하자고 함?

짱: 일반적으로 대학원 총 사무국장. 총학생회장. 대학행정---장 세명이서 등심위 열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함. 그래서 실무적인 사람들과 먼저 이야기 하자는 취지

한길: 5차 총운위 논의 2 시흥캠 추진위원회. 위원회에서 총학생 위원 구성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대강 설명 바람.

짱: 추진위원회라 하면 나와 있듯이 학부생 중 총학생회장 1인. 이외의 시흥캠 관련 기구들에 대해 규정을 보면 자문단 등을 들 수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긴 한데 공유받은 바로는 학부생의 공간은 거의 없기 떄문에 학부생 의원 파견엔 회의적.

한길: 궁금한게 학부생과 무관한 캠이라는 게 확정?

짱: 공유받은 자료만으로는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학부생 사회에서 관심 많았던 의제이다보니 총학에서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 참여 하지 않을까 기대

한길: 앞으로 이 추진위 보고?

짱: 회의가 있으면 간략 보고를 하기는 함. 그러나 지금까지는 중요 내용 없었다고 함.

나침: 등심위 관련해서 사회대 제안이 다른 단과대와 다르게 특별히 준비?

짱: ㅇㅇ. 2차 단운위에서 의결 후 제안.

그런 내용들이 일정상 이유라고 하기엔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다는 생각이 듦. 사후평가를 진행한다던지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함. 혹시 다른 의견?

C반 7:44 입장.

짱: 보고안건 2번까지 발제드리고 질의 받는 중이었음.

한음: 1/5에서 연락받고 1/8 까지 총학생회장과 연락 안함?

짱: 등심위 관련 내용은 직접 소통을 안하고 대자연장님과 소통함. 시간 상 문제도 있었겠으나, 일방 적 통보받은 느낌이었음. 1,5까지는 포함하겠다는 식으로 진행. 그런데 나중에 밝힌 바로는 등심위 요구안에 포함 안한다고 카톡방에서 밝힘.

한음: 뭔가 이상한 거 같음. 회의에서 포함하기로 결정? 아니면 회의 없이 결정하신거?

짱: 1차적으로는 5일 회의가 규정이 명확한 회의가 아니었고 안건지도 없이 약식으로 진행. 그럼에도 불구, 당일엔 업무나 요구안을 정리하면서 요구안에 넣게따는 명시적 합의 있던 것으로 자신은 이해. 별도의 논의 없이 7일에 뺴겠다고 의견을 전달하셨음. 그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논의해봤으면 좋겠다고 거듭 주장했으나 완고하게 주장.

한길: 한음에 동의. 일방적 통보라면 좀 말이 안된다. 추후 총운위나 어떤 경로로든 논의 해야한다고 생각. 전달 부탁.

짱: 대학행정자치—등심위 팀 내에서 이루어진 과정이라서 그 안에서 평가회의 요청하는 게 어떨까 생각함. 추가의견? 없으면 사회대 요구안에 대한 부분은 공식 평가 남기는 거 요청 후 이후 경과 보고하겠음.

교자: 저도 등심위에 참여. 대위원 연사로 받으려고 하지 않앗ㅆ음?

짱: 네.

교자: 그 이후 경위 모름. 기억하기론 대자연님이 총운위 보고 했고 연서명 해야 한다고. 총운위원들이 알았다고 함. 그리고 연서명 함. 중간에 대자연장님이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하심. 근데 이게 잘 전달? 그리고 연서명 하신 분들이 이걸 아시는지 궁금. (연서명 전달안되었다는게 밝혀 . 모두가 당황함.) 이걸 대위원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음.

짱: 네 뭐 의문이 있으신건가요?

교자: 네 어떻게 뭐 전달이 되었는지..? 하지만 대답을 들은 것 같은. 그리고 또 전학대회방이나 이런데 공유가 되었나요?

짱: 아니요 하지말라고 함. 댖연장님이 안하는게 낫다고.

한길: 연서명한게 어떻게 되었다는거..?

짱: 연서를 많이 해서 연서를 근거로 회계결산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었는데, 연서가 1/7까지 20여여 개 조직. 수적으로 적다는 판단 있지 않았나. 1/6에 연서 요청. 하루만에 공론화 안된 의제에 대해 연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듯. 개인적 입장으로는 ㄱ장기적 대응 가능할 듯. 그런데 대자연장 입장은 너무 적어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신듯. 그래서 결산 요청이 제외되었고 연서도 제외.

한음: 그러면 대자연장님이랑 등심위 내부에선 회계결산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데 요구가 모이지 않아서 요구안에 넣지 않은 것?

짱: 그분들 생각 대변은 못하지만 1차적으로 과별 회계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데에 원론적으로는 동의. 벋 등심위냐 학과 별 대응 사항인가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지 않았나.

꼼: 학과 차원이라는건 과반 단위?

짱: 네.

불꽃반: 선후관계를 잘 모르겠음. 연서 적어서 기각? 아니면 기각되서 연서가 무효화됨?

짱: 제 이해론 전자.

불꽃: 애초에 그게 그런 이유로 기각될 안건이었으면.....

짱: 저도 동의함. 연서도 전략이 맞지만, 과반 관심이 막 크지 않더라고 공개하는 게 투명성 차원에서 그 자체로 정당한 논리가 있지 않나

한길: 기각이 되서 합의가 안됨. 다음 등심위는? (요구안이 전달 안됨)

짱: 그거에 대해선 학생회의 추후 대응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갠적 입장으로는 학부/단과대 차원에서 요구가 완전히 비현실적은 아니라 생각. 등심위는 상반기에 또 열리긴 하나 이 내용이 의논될지는 의문, 아마 내년?

한길: 의견을 남기고 싶은게 등심위라는 게 동결 같은 사항만 합의. 매년 동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음. 사회대 총읠ㄹ 모아서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게 기각되었다는 건 의사결정에 심가ㄱ한 문제. + 학과 차원에서 대응 가능하지만 등심위랑은 아주 다른 결이라 생각함. 그래서 꼭 이걸 등심위에서 논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짱; 추가 의견 질의?

나침: 터진 연서 누가 작성?

짱: 이거는 등심위 팀에서 작성,

나침: 근데 연서 결정은 대자연장님?

짱: 회의에서 연서 모아보자 라는 것에 이야기 진전 있었음. 그래서 회의에서 결정하고 모으기 위해 실무자를 정하고 쓰고 핃백 후 연서. 의견/질문?

보고안건 3. 집행위원회 보고, 전체회의 3차까지 진행. 인사팀/생문.교자팀 세팀으로 구성되었고 이외에 홍보디자인 특별팀. 구체적 사업은 세 팀 위주. 사업들을 간략하게 정리. 나와있는 내용외에 설명드릴 내용은 없음. 홍보주간 관련해 설명. 형태는 중동에서 진행하는 동소제의 형태로 이해해주시면 편함. 3월초 늦어도 중에 진행하는 걸 기획. 인문대와 사범대에서 공동으로 진행하자고 해주셔서 실무적으로 논의 진행 중. 새내기 자료집은 뻔엠 장터 일상 사업 소개부터 학생회 사업에 대한 안내까지. 폭넓고 실용적인 자료. 새터 자료집에 담기지 않는 내용들을 담으려 함. 게시판 관리 규정. 사회대 총엠. 3월초에 사회대 차원에서 엠티를 기획. 기획은 진행 중. 성사 가능성은 아직 난망. 피드백 창구 마련 중. 우편함. 교자팀은 의제별로 추진해야하는 사업들이 많음. 의제별로 담당자 정하고 차근히 진행중 질문?

불꽃: 사회대 홍보주간이라는게 동소제라면 뭘 소개한다는..

짱: 참여하는 단위가 폭넓지 않을까. 동아리 외에도 학회나 자치 단위들.

불꽃: 과반도 홍보 가능? 느낌이 안 와닿음

짱: 아직까지 생각은 못 해봄. 인원을 모아야 하는 단위는 아니라서.

(생문팀장이 추가 설명 함)

씨: 총엠티 굉장히 기대됨. 새터의 느낌인가요?

짱: 뭐에 변형이냐면 확간수. 나름의 행사. 워낙 참여인원이 저조. 어떻게 개편할까 고민하면서 총엠으로 진행.

씨: 게임이 주가 되나요?

짱: 새내기 중심 홍보. 처음 적응하기 위해 내용들을 설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목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음.

씨: 새내기 자료집 관련.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것들을 구상?

짱: 총엠뻔엠 등 학번 사업. 사회대 문화자치 행사. 축제 운동회 리부트 농활. 마지막으론 인권 사업을 어떻게 진행? 등등.

나침: 새내기 자료집이라는 이름보다는 좀 더 과반 자치에 관련된 게 많은 것 같음. 이름을 고려.

짱: 제목을 많이 고려해 봄. 확정 제목 아님.

불꽃: 동아리도 넣으면?

짱: 동아리 소개? 어떤 방식이더라도 넣어야 할 것 같다는 고민 중. 새터 자료집인지 여긴지 뭐 고민중임. 추가 질의?

씨: 관련은 아닌데, 지금의 새터 자료집을 여기의 새내기 자료집처럼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요?

짱: 3월 전까지 인력이... 그리고 새터 자료집 내용이 꽤 있다보니 너무 헤비해짐. 넘? 넘.

보고 4번 새맞이 기획단 보고. 자세 사항은 없음. 회의록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열람. 특별 보고는 1.10 1.12 수시생 오티 진행. 내규 특별과 오티 특별 팀 중 후자는 업무 종료. 내규 특별팀은 내규 해제문 작성 예정. 현재 좀 주요 논의 지점은 2018 새터 평가 및 2019 새터 기획 구성 진행 중. 과장님들의 많은 관심 바람. 개인적인 소망: 새맞이 회의가 현재 1학년 분들 중심. 그래서 연계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셨으면. 고학번과 소통을 많이 해야하는 상황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보고 5번. (읽는 시간 3분) 저번에 가맹. 구체적 내용을 담아왔음. 결산안은 생략. 단운위 톡방에 있음.

꼼 8:15 퇴장.

씨: 읽고 맘에 안드는게 있다고 해도 질문 상대 없지 않나요?

짱: 있긴... 한데...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꼼 입장 8:17

나침: 일전에 올려주신거랑 똑같은건가요?

짱: ㅇㅇ

짱: 질문/의견?

한길: 9p에 오타 아시죠?

짱: 네. 오타... 넘? 넘.

각 단위 보고 시간. 불꽃반부터.

불꽃: 12일에 오티가 끝나고 반 0차 오티 진행. 지금 계획으론 2/12 1차 오티 계획중인데, 마땅히 16동 외에 강의실 대여가 불가해서 날짜 바뀔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음. 이상.

씨: 새맞이 관련해선 새짱들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터치 안하고 있음. 반에서는 지난주 금욜에 집행부 회의. 쟁점이나 논란은 없었음. 반이 그냥 잘 돌아가고 있음. 이상.

한길: 한길반 확간수를 1.5-6에 갔음. 자치에 대한 짧은 토론, 취임식하고 스카이캐슬을 봄. 다음주에 월 수금에 걸쳐 반방 갈아엎기 대작전 이라는 행사 예정. 2월초에 새준위 회의 날짜에 맞춰 학회 소모임 집담회를 할 생각. 3월이 되면 둘 다 모집을 하니까 그 전에 조적할 사항에 대해 토론. 한길반은 2/9 2/14에 신환회 예정. 이상.

꼼: 1차가 1.10에 같이 진행. 2차 1/29, 3차 2....14일..? 다음주에 반운위. 상반기 대략적인 계획들이 진행될 예정. 오늘은 반 도서관 사업을 위해 책 정리를 함. 2. 19-20은 LT. 이상.

나침: 수시생 오티날 항상 0차 신환회를 했기 떄문에 12일에 진행. 1.26 2. 14 3.28 1,2,3차 신환회. 예약도 끝냄. 2.21에 정외 신환회. 회칙 개정 티엪 1/9 1차 회의함. 이상.

한음: 12일날 오티하면서 1차 오티 진행함. 2차 오티는 2.14로 예정되어 있음. 3차는 3.2..... 큰일이라고 함. ㅇㅅㅇ 수업요구안을 수합하는 중. 1/20까지 받고 교개협 진행하려 함. 자치회와의 권리 통합을 추진 중. 개강 총회에서 자치회 참관 후 한음반을 인류학과/한음반으로 개명하는 논의 예정. 자치 도서관 tf 개설 했었는데 모집률 0.... 그래서 혼자 하게 됨..... (눙물) 과방에 각종 자료를 아카이빙하려 함... 과방 내규를 짜보려 함. 깃발이 사라짐...!!!!! 새로 뽑기로 함. 운영상 어려움. 왜냐 회칙이 없음. 회칙 제정에 대해 고민중. 학회 문제는 집부 내에서 논의하다가 새맞이 차원에서 좋겠다고 해서 넘겼는데 부결되어서 집부로 다시 넘어옴. 이상.....

짱: 보고 끝. 질문?

한길: 저번에 나침반이 반방 청소 함. 그런데 폐기물 어떻게 하셨는지?

나침: 면접 전날. 많이 버리면 안된다고 경비 아저씨께서 말씀 하셨음. 알고보니 오전에 청소, 그래서 쌓아둠.

한음: 저희도 했는데 박스에 종이 모으고 그런 식으로 청소하시는 분 배려해서 모아놓으면 사라짐

짱: 왜 청소를 3일동안?

한길: 동원 인력의 문제. 첫째날 버리기만. 둘째날 쓸고 닦고 마지막 날 꾸미기

악 8:32 입장.

교자: 말씀드릴게 있음. 교자팀에서 과반 교개협 지원하기로. 아까 몇 분들이 반별 수합 하고 있다 하셔서. 자치팀에서 이야기 한건 어떤 과정을 통해 모았으면 좋겠는지 등의 로드맵 작성 중. 최소 다음 단운위 전까지는 가져오겠음. 우너안을 가져와도 반마다 상황이 다름. 그래서 최대한 한분씩 만나면서 로드맵을 반마다 수정해서 협의하는 식으로 생각. 이렇다는 것 알려드림. 질문. 듣기로 경제학부에서 자치지원금 논의의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씨: 가장 최근에 지원금 쓰려고 했던게 불꽃반. 1/3로 줄은 것 같음. 너무 다급해서 받았는데, 이후에 상황 파악하려 노력. 그러나 아직은 상황 파악이 정확히는 안됨. 진척이 없음.

교자: 나중에 얘기해봅시다.

짱: 저는 앞서 등심위 얘기했는데 과반 예결산 내역 공개 요구한다면 교개협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서 그 부분도 고려해주십사.

꼼: 학과장님이 메일 읽씹..?

교자 8:37 퇴장.

짱: 찾아가...세요..?

불꽃: 12일에 아무도 신환회를 안하는데 16동에 강의실 무,, 70명 정도 들어가는 강의실 있나요?

부짱: 그날 텝스. 아연에다가 말씀이 나을 듯.

불꽃: 9-5까지 텝스가 모든 교실을 다 빌려가서 쓸 곳이 없음, 아연 어떻게 연락?

부짱: 아연 홈페이지.

불꽃: 과 차원에서 빌릴 수 있나요?

짱: 과 학과장/ 교수 사인 있으면 가능. 학과 차원에서 이야기를 잘 해서 하면 될 듯.

불꽃: 감사합니다.

짱: 나침반 회칙 개정은 어떤 내용?

나침: 눈에 띄는 오류들이 많음. 숙원 사업 같은 것. 대표적으로 학생회장 임기가 없음. 또는 선관위 규정이 없음. 이런것 등

한음: 선거세칙 아닌가요..?

나침: 아님. 회칙 세칙 따로.

한음: 선거세칙 있는데 세칙없어서,,,

불꽃: 부탁? 나침반만큼은 아니지만 회칙에 너무 내용이 없다는 내용이 많음. 회칙을 추가하려 하는데 사회대 학생회 회칙 있나요?

짱: so.jinbo.net에서 회칙 세칙 열람 가능.

나침: 의견 있음. 혹시 과반 회칙을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짱: 한음반 이름 바꾸려면 사회대 회칙도 고쳐야. 넘? 넘

논의 1. 집행위원 인준. 이재인 님 인준 요청. 질문 없음. 박수로 넘.

논의 2. 비서공에 파견위원 결정해야. 집행위원 중 인사팀 업무가 많이 겹쳐서 올해도 인사팀장님이신 지후님을 파견위원으로 인준하는 것 요청. 박수로 인준.

논의 4.

악: 3번은..?

짱: 논의 3번은 있었는데, 대학민주화를 위한 연석회의 재가맹 여부 논의하려 했는데 담당자와 소통해보니 상반기 계획 정리가 아노디어서 다음으로 넘김.

논의4. 성소수자 인권 포럼. 길어서 일단 읽어보시라.

(너무 길어요~)

짱: 1,2,3 페이지를 읽,,,

부짱: 3페이지 후 9페이지 보면 될 것 같음

한길: 총학에선 이미 공동주최가 결정?

짱: 네. 맥락 설명을 드리면 이게 처음에 포럼 제안 받았을때는 18, 19년 기획안 없어서 판단 어려웠음. 그래서 정보 불충분 상황에서 너무 이름만 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 의견. 그래서 정보 보충 후 회의를 다시 엶. 특별 사항으론 인권센터와 협의 중이셨는데, 본부에서 공간 사용 승인을 보류 중이었음. 명시적 이유는 외부인 참여 많아서 인데, 어쨌든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행사에 대한 조심성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였음. 그래서 총학 단위에서 공동주최하면서 공간 사용 승인. 왜 사회대 단위에 특별히 공동주최 제안이 왔냐면 1. 아연이 사회대 건물. 2. 발제자 분들을 보시면 사과대 분들이 발제에 참여하고 계심. (2018 기준). 여성학 협동과정이나 석박사과정 분들이 많이 참여하심. 그래서 별도로 공동주최 요청이 온 것 같음.

한길: 만약 공동주최하면 홍보 돕고 연대말씀 올리는 것?

짱: 네 그 정도?

한길: 연대말씀이 뭐 자보 쓰는 건가요?

짱: 그럴수도 있고 총학은 축사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엔... 아마 자보?

나침: 잘 몰라서 그러는데, 3-4p의 연혁에 왜 16년엔 서울대 관련이 많고 17-18에는 연대 관련이 많음?

짱: 포럼 진행되는 공간의 단위가 공동주최 많이 해서 그럼. 최근에 대학교에서 인권포럼을 위해 공간대여 승인을 잘 안해주는 상황이라서 올해는 조금 급박했던 것이 본교에서 못하면 한국에선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함. 타교에서도 거부 당하신 적 있다고 함. 질문/의견?

사회대 단위로 공동주최하게 된다면, 연대의 글을 짧게 쓰는 것이 좋겠죠? 특히 사회대 학생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열심히 글 잘 써보도록. 괜찮을까요? 표결 필요할까요?

없으시면 박수로 인준 (박수로 인준)

회의 끝.

한가지 문의: 사회대 집행위원장님을 단운위 톡방 초대해도 괜찮을지. 속기자 배정의 역할 + 집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소통

(좋아요~)

그렇게 하기로. 끝.